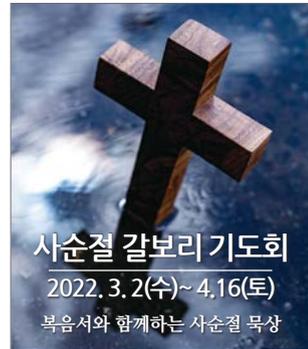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에스겔 37:1~6)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나사렛 성전 리모델링

전 세대가 다 함께 공유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다음세대는 미래의 주역이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다.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아 광림교회는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우고 거룩한 예배와 신앙이 성품화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나사렛 성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회학교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가고 있다. 내년 광림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시설에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본당 지하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사렛 성전 다목적 예배공간으로 거듭나 먼저 지하에 위치한 나사렛 성전이 새로워진다. 나사렛 성전은 본당 대예배실 다음으로 큰 규모로 그동안 주일에는 중등부 예배실과 선교구 모임 등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보수해야 할 곳이 생기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공간도 필요하기에 2월부터

3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다목적 예배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주일에는 중등부 예배실과 평신도 교육프로그램 장소로 활용되며 평일에는 어린이부터 청년, 선교구 모임까지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본당에서 장친홀로 가는 공간도 따로 분리되어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구별된다.



공간 재배치로 효율성 높여 기존 유아부실과 유치부실은 사회봉사관 3층으로 옮겨진다. 현재 영아부는 사회봉사관 3층에, 유아·유치부는 본당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다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영아·유아·유치부가 한곳에 모이게 되면 영유아 교육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공간에는 성가대 악보실과 성가대실이 함께 배치되어 아름다운 찬양연습 시설로 바뀌게 된다.

하반기에는 사회봉사관 5층에 위치한 광림역사박물관이 본당 지하로 이동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이 언제든 광림의 역사를 접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된다. 광림역사 박물관 자리에는 샤이닝스쿨 학생들이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된다. 광림교회 여성 원로장로와 시무장로 6명의 헌신으로 대예배실 카펫이 새롭게 교체되어

대예배실 분위기는 더욱 환해졌다. 제단에 있는 태극기와 교회기, 스톨도 한 장로의 헌신으로 새것으로 교체되었다. 웨슬리관 사랑부 주간보호센터의 냉난방 시설과 배관도 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 광림교회학교는 다음세대를 위한 겨울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새학기 가족기도회를 열었다. 주중교육인 샤이닝 키즈스쿨·유스와 주말 샤이닝 토요일 활동 SSA로 모여 전인적 신앙교육을 통한 차세대 기독교 리더 양육에도 힘쓰고 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교회 곳곳의 리모델링을 통해 교회학교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청년, 선교구까지 전 세대가 교류하고 공유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유병권 기자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육적인 것을 넘어 영적으로도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먹던 빵을 말합니다. 즉 매일 먹어야 하는 것,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직업을 흔히 ‘밥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곧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생명을 유지하고 양식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일과 삶의 목적이 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을 얻는 것에 집착합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배가 채워져야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배가 아닌 영적인 배를 채우며 영생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며 그 풍성함으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참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예수를 따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기 전,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큰 무리가 이 표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기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 빌립은 떡을 사기 위해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한 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으로 오천 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원대로 먹고 배부른 후에도 음식이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아닌 육신의 것, 즉 떡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요한복음 6장 22~40절
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니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중에 내가 하느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라는 이것이니라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26절)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았다면 그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아닌 그 표적 자체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27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아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지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돈, 명예, 권력과 사람 그리고 건강

등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소유하지 못할 때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소유하고자 하는 대상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상적인 소유를 통해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삶에는 늘 상실감에 대한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렇기에 세상적인 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없습니다.

떡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소유지향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즉 떡으로 인한 배부른 삶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들의 존재를 바꿀 줄 양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으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소유를 지향하지 않고 존재를 지향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며 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생명의 떡으로 영생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40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웨스트코트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부활한 후에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생이 부활을 필수불가결한 사실로 입증해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때, 부활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말씀 안에 거하며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삶 속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영양소나 칼로리 등을 다 알지 못하고 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은 음식은 몸 안에서 분해되어 에너지가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곧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참된 생명이 있게 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며 나의 삶과 내 안에 주를 모시어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은퇴장로 찬하예배, 신천장로증서 수여식

제42회 강남지방회, 사회봉사관에서 개최



서울남연회 제42회 강남지방회가 2월 20일 (주일) 오후 2시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지방회 회원, 구역대표 및 시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성철 감리사가 담당 1차 회집은 교회예배 및 성찬식에 이어 각 부서 보고 순서로 진행되었다. 각 분과위원회에 이어 제2차 회집에서는 별세장로 추도예배가 열려 지난해 소천한 광림교회 김병우 장로 등 4명에 대한 예배 및 헌화가 있었다.

김분한 장로, 이동호 장로에 대한 은퇴식이 진행되었다. 말씀을 전한 김정석 감독은 '꽃대를 향한 쉽 없는 경주(빌 3:12-16)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첫 번째 복음 전파 사역자로 빌립보를 선택한 뒤 그곳에서 모함을 받고 옥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옥중서신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복음을 늘 가까이 할 때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항상 기쁨이 넘

쳐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매일 새로운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삶을 통해 기쁨이 넘쳐난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추구해야 할 꽃대를 향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 셋째, 우리의 삶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이어가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은퇴하는 장로 두분은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주님과 과의 교제 속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면서 경건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1년에 7명 이상을 전도한 성도 8명에게 전도상을, 성경을 3독 이상 통독한 성도 55명에게 성경통독상을, 신구약 성경을 1번이상 필사한 성도 36명에게는 성경필사상이 수여되었다. 교회학교 교사는 10년 근속 17명, 20년 근속 6명, 30년 근속 5명에게 근속교사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2022년 새롭게 임명된 신천장로들은 품행통과를 마치고 신천장로증서가 수여되었다. 광림교회에서는 신병식, 우형진, 최재환, 고희동, 배경호, 윤완선 장로 등 6명이 받았다.

이득섭 기자

포토 뉴스



삼일절 기념주일

2월 27일 삼일절 기념주일을 맞아 태극기를 새롭게 교체했다.



대예배실 카펫 교체

여성 원로·시무장로들의 헌신으로 대예배실 카펫이 새롭게 교체되었다.



새학기 가족 기도회

새학기를 기도로 준비하는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렸다.

광림남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2월 13일 저녁예배에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겹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헌신예배 전단지를 만들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남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여를 독려했고 주중에는 목회자와 남선교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직접 회원들에게 전화심방으로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마음은 바쁘고 몸은 힘들었지만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부족한 것을 채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남선교회 헌신 저녁예배 당일! 특송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를 부르며 헌신과 결단을 다짐했으며, 이어진 담임목사님의 골로새서 1장 9~12절 말씀을 통한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을 닮아 가려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안에 있을 때 삶이 변화된다. 하

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늘 나라의 기업을 찾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 뜻을 알고 어떠한 환경에도 기쁨이 되는 오래참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리더가 되라"는 말씀이 도전이 된 것은 예배 시작 전 담임목사님께서 새롭게 단장한 청장년 부실과 남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임원들과 함께 목회 비전을 나누고 공감하는 뜻 깊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광림남교회 남선교회는 동탄교회와 아프리카 잠비아 미션센터 건축에 적극 참여하여 선교적 지경의 확장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민철 권사(광림남교회)

담임목사 동정



- 2/19 남선교회운영위원회
- 2/20 강남지방회
- 2/22 감리교총회실행위원회
- 2/24 남연회 감리사협의회 교계 지도자 모임
- 2/26 광림실업인선교회40주년 감사예배
- 2/27 삼일절 기념주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찬양의밤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장로의 소임을 마치며 ①

하나님 나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에 감사

2004년 1월, 장로 피택의 시작은 사랑부이다. 1993년 광림호스피스선교회를 결성하면서부터 말기암환자를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다. 호스피스 간호는 누구나 필요하고 절실하다. 간호를 실천하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이론을 공부할 때는 모두 감명을 받고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는 일기에 관심이 크지만 실천에 들어가면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간호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그 일을 봉사로, 학문적인 틀로 남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1986년 박사과정에 들어갈 때 노인 간호에 관심이 많았지만 영혼구원에 초점을 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전공을 고정하고 미국에 가서 호스피스 이론과 실무를 공부했다. 실천적 접근학문이며 무엇보다 임종환자의 영혼구원에 꼭 빠져 버린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 시절 환자가족 69명을 전도해 전도왕 상도 받았고, 김선도 감독님의 목회 철학과 제가 하고 있는 호스피스가 딱 맞아 신바람 나

게 봉사했다. 그때 실천과 연구 성과로 수 천명을 임종 간호해 드리고, 암환자 7대 암 치료의 국가 보조 90%, 말기 임종환자의 1개월 전 입원 수가가 가장 높을 때 최저 수가 지정 등 암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된 것이 큰 보람이다.

장로 피택 후에 임명된 사랑부에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많았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도 필요하시니 세상에 보내주셨으리라 확신하고 새벽마다 하루 세 시간 이상 떼쓰고 매달리며 기도했다. 아이들 부모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것이 제 기도였다.

위원장 임명을 받고 2년이 되어갈 때 교회 자장으로 광림주간보호센터를 개설했다. 서울에서 규정이 없어 허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조항 없으면 기타라고 쓴 조항에 넣어 인가해 달라고 해서 2005년 11월에 드디어 10명의 장애우 친구를 돌보는 기관이 설립되

었다. 지금은 광림주간보호센터와 예수와주간보호센터 두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사단법인광림이 설립되어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

사랑부에서 체계적 교육으로 시작한 미술반은 인사동 경인갤러리 전시, 사회봉사관 건립 및 교회 60주년 기념 국제미술전시회를 개최하며 십여 명의 친구들은 지금 화가의 길을 가고 있다. 오카리나 연주팀은 일본, 대만, 이탈리아, 프랑스, 베트남 등 국내외 연주를 하고 있고,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친구도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고 은혜이며 축복이다.

시무장로 마지막에는 교회학교 영아부를 맡게 하셨습니다. 손주를 돌보듯 하며 믿음 좋은 교사들과 좋은 교재도 했고, 이제 여선교회와 함께 하는 시간을 주셨으니 기도로 중보하고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나라

와 교회를 위해, 교회학교와 청년부 부흥을 위해 앞장서고 싶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김분한 원로장로

장로의 소임을 마치며 ②

신앙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기를

부족한 사람이 장로의 소임을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릴 적 할머니 등에 업혀서 시골 예배당에 다닐 때 “너는 이 시골교회를 20여리를 걸어서 다니지만 나중에 서울 큰 교회 장로 되거라”는 할머니의 유언대로 장로의 직분을 맡아 장천문화선교위원장, 장학위원장을 마치고 퇴임합니다.

60 동기 장로님들의 기도, BBCH홀 전 임성준 관장, 장학위원회 박상희 권사님을 비롯한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동기장로 부부들이 담임목사님과 같이 다녀온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는 정말 은혜스럽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여섯 분의 신장장로님들과 교회 내외적으로 막중한 사명을 담당하실 시무장로님들께 감사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롯데그룹에서 평사원으로 입사, 대표이사로 퇴직하기까지 38년을 근무하면서 감사, 사랑, 겸손, 희생, 충성 5가지를 좌우명으로 소공동 롯데호텔, 부산롯데호텔, 울산호텔에

기독교 직장 신우회를 설립,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나고 보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순종과 겸손’이 가장 큰 덕목인 것 같습니다. 저와 집사님 남영조 권사와의 자녀(2녀 1남)들이 광림교회 집사 직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손자·손녀 5명 모두가 세례받고 광림교회 입교인이 돼서 13명 가족 모두 ‘광림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도 당당히 증언하고, 신앙의 계보를 세워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광림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교회적 사명을 위

해 감독님, 담임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동호 원로장로

<예배위원회>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광림교회 예배위원회(위원장: 정하원 장로)는 지난 2월 13일(일) 예수와에서 예배위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예배위원회는 성도들이 안전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안내 및 코로나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예배 전후 예배 방해와 응급환자 발생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고, 사전점검 및 준비를 통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회 내에서 응급환자들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예배위원회는 2020년부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련기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소호흡기, 휠체어, 심장제세동기, 응급환자용 침대 등을 비치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실시한 교육은 예배위원 35명이 참석하여 의사인 정하원 장로가 직접 강사로 나서 응급처치방법과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은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대처법, 사고시 응급상황 대처법, 증상에 따른 효과적 대처법, 기본적 응급처치술, CPR 7단계, 기도폐쇄 처치법,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코로나방역에 따른 대응법 등을

교육하고, 심폐소생술은 참석자 전원이 실습에 참여했다.

정하원 장로는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 5분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산소공급이 끊어져 뇌사로 진행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5,000여건의 심정지가 발생하고 초기대응 실패로 5%만 생존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119 구급대원 도착전까지 심폐소생술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응급대처법입니다”라고 말했다.

예배위원회는 이날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코로나 확산 등으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임시호 권사(예배위원회)

나는 자유인이다!

LFC 청년부 2022년 겨울수련회



광림교회 청년부는 2월 11일(금)~13일(주일)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으며 또한 모임마다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금요 전야제’로 시작했습니다. 방송인, 조예준 속장의 진행으로 온라인 보물찾기, 수련회 최고 찬양, 사연 등 수련회의 추억을 공유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련회를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청년들은 광림수도원으로 이동하여 저녁까지 수련회와 함께 했습니다. 개회 예배 후 공동체 프로그램, 천국 노래 자랑을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집회에는 쉼이나 워십 팀과 마하나임 A.P 워십 팀의 강력한 찬양, 김형석 목사(필그림교회)의 ‘멀리 가려면 받아가라’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남선교회 총연합회에서 청년들을 위해 간식 세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일 5부 예배에는 김주송 목사(청년부)의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인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자유인으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후 청년들은 함께 결단문을 써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고, 주변 사람을 찾아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한 국내 선교팀 황예찬 팀장은 “이번 청년부 수련회는 코로나 음성 여부가 확인되어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거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

니다.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푸드 팀의 조성진 형제는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멈춰 있던 신앙을 회복시키셨고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하셨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방송인 속장은 “수련회를 준비하며 헌신과 사랑 실천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감동을, 조예준 속장은 “저의 갈급함이 오랜만에 내린 단비처럼 해소된 행복한 수련회였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프로그램팀의 이찬영 형제는 “수련회를 참여 못 할 상황에서 속장님의 권유로 참여했는데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했고, A.P 워십팀 신가영 자매는 “신앙의 새로고침이라는 말이 제게 크게 다가왔고, 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내기로 처음 참여한 최하은 자매는 “다양한 나이대의 청년들이 함께 활동하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수련회라 좋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광림의 청년들이 2022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제가 속장으로 섬긴 지 6년여의 시간 동안 가장 큰 은혜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속회에서 저의 약함을 나누며 누군가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였고,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온전하게 치유 받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 3 때, 친하게 지내던 두 명의 친구와 멀어지게 되면서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관계성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관계성에서의 어려움을 느끼며 학창 시절을 보냈고, 재수를 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고, 청년부 조리지 속장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속회라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나게 되며 진정한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물질의 연약함을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는지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아버지께 찾아온 뇌졸중과 더불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1년여를 누워계시다 소천 하셨습니다. 주 7일 과외를 하며 힘들게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믿은 이후가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도 언제나 제 안에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김주송 목사님께서 속회 시간 가운데 ‘사랑 실천’에 대해 매주 나누게 되다보니 저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가족과 친구, 동역자들과 교역자 분들께 돌려보낼 수 있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채우기에 급급한 삶’이 아닌, ‘채워주셔서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모에 있어서의 약함과 회복입니다. 스물 다섯의 나이에 대상포진으로 인한 안면마비인 ‘람세이헌트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10%완치율과 후유증이 있는 질병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일을 하던 저에게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선교 팀장의 자리에 순종하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어 SNS에 사진과 함께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볼 수 있는 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함께 교육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동역자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때면 그것이 저의 강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속장으로 섬기며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최은혜 지구장(청년부)

MORE THAN MONEY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특강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이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은 나의 전부이기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분들이 교회 안팎에 많습니다. 반면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많은 분은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서도 ‘사랑’이란 단어는 약 500회 인용되지만, ‘돈’은 약 2,350회 이상 사용됩니다. 세상의 돈과 신앙의 돈은 다릅니다. 세상의 돈은 ‘열심히 벌어서 멋지게 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돈은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확인하기 위해 돈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청장년부에서는 2~4월, 둘째, 넷째 주에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다’라는 제목으로 성경적인 돈의 가치를 배웁니다. 또 3월까지 셋째 주마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재정관리’라는 제목으로 김남순 소장(前 씨티은행 부사장, 現 미래 희망 가정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실제 재정관리를 배웁니다. 지난 주일 (22일) 첫 강의 때 ‘성도는 3가지를 내려 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첫째, 성도는 자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정 지출의 52%가 자녀 교육비입니다. 부모는 사교육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 신입 사원 중 2/3은 만족도와 성취감을 이유로 퇴사합니다. 성취감과 만족도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 지금부

터 많은 지출을 하는 건 부모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집은 투자 자산이 아닌 사용 자산입니다.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것(live)입니다. 부동산의 유희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합니다.

셋째, 미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관리 능력 때문입니다. 잘 관리한 종에게는 더 큰 것을 맡겼고, 관리 못한 종에게는 오히려 빼앗아 다른 이에게 맡겼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돈의 주인이지만 관리 능력이 있는 이에게 더 많이 맡기십니다. 그래서 김남순 소장은 2가지 ‘가계부’와 ‘재정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영끌, 떡상, 코인을 좇지 말고 매일 주시는 재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2022년 우리 모두 재정 관리 능력을 키워 돈 걱정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용찬 목사(청장년부)

기도하는 삶의 회복

- 목회현장 -



김요섭 목사(2선교구)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 허드슨테일러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이 낡고 녹슬어진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기도 소리가 희미해지고 어느덧 기도 소리가 작아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일상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살아있어야 할 기도의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선교구에서는 작년 12월부터 두 번에 걸쳐 3주 동안 매주 한 번씩 교회에서 모여 함께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삶을 다시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찾기 위해 함께 모였는데, 함께 기도하다 보니 오히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의 삶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통째로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열매를 거두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삶을 걸어왔듯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드리지는 순전한 그 기도, 아무도 없는 성전에 홀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속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차가운 계절, 기도의 삶을 회복함으로 뜨겁게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외선교지 순방 - 2>

포기하지 않고 푯대로 나아가는 선교

- 몽골 광림교회 -



사도바울의 삶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어떠한 고난도, 마지막 죽음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선도 감독님과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복음 전파의 열정과 기도로 세워진 몽골광림교회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은 선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몽골 정부에서 종교시설 내 예배 금지를 공표하고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일예배를 교회가 아닌 가정집과 사무실, 야외에서 인원을 나누어 약 4개월 동안 비밀리에 드렸습니다. 한번은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옆집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급하게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릎쓰고 주일성수를 지키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의

뿌리가 약한 몽골 성도들이 주일성수의 중요성,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몽골은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전체인구 300만여명 중 46만여명이 되었으며 하루 확진자가 약 500-700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설의 예배 제한이 많이 완화된 상황이라 어빙게렐교회(100명)와 어르비트미션센터(50명)의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본교회에서 보내주신 의류품, 의약품, 생활용품, 커피, 차



등을 성도들과 지역 관공서 및 주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삶과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몽골교회가 사역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저희 몽골광림교회는 감사함으로, 은혜로 흔들림 없이 예배와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022년도 몽골광림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선교사역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푯대를 향해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몽골 광림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빙게렐교회(예배사역, 지역전도사역, 청소년문화사역)와 어르비트미션센터(예배사역, 광림한국문화원사역, NGO자원봉사사역)의 선교사역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도록, 이 사역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채욱 선교사 가정과 어등가와 선교사 가정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몽골선교를 위해 함께 중보 부탁드립니다.

이채욱 선교사(몽골)

<7선교구>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에서 기도회



2022년 첫 일일기도회 날짜가 정해지고 장소가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라는 소식에 기대와 궁금증으로 기도회를 기다렸습니다. 서울의 어느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어떤 동네가 재개발 된다는 소식에 주변이 떠들썩한 요즘, 감리교 교역자 자녀의 기숙사로 쓰였던 인우학사가 선교사님들의 쉼터로 리모델링되었다는 소식은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감동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기도회 당일, 영하 10도의 한파와 코로나의 걱정스런 뉴스에도 버스를 가득 메운 7선교구 식구들의 기쁨과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듯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10여분을 한적한 주택가를 산책하듯 걸어 도착

한 세계선교센터는 아늑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센터장인 이상훈 목사님은 소개 말씀을 통해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는 2021년 11월 18일 개관 후 80개국 1,350여 명의 감리교 선교사님들과 가족 분들의 쉼터로 소중히 사용되고 있고, 이미 29가정 40여분이 다녀가셨고 기도회 당일에도 5가정이 머무르고 계시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광림교우들의 헌신과 2021년 연말 7선교구의 후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회 후 센터의 1인실과 가족실 등을 둘러보며 광림교회의 리모델링 비용 헌신 외에도 방내부의 비품들은 여러 감리교 교역자분들과 교인들의 헌신으로 채워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

다. 여러 모양의 정성과 기도, 후원과 헌신들이 모여 이토록 아름다운 센터가 세워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응원이 되고 진정한 안식처와 재충전의 쉼터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이어지기를 기도하며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운데에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는 광림교회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끼며, 2022년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의 건축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성취되길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일기도회의 시간이 잠시 잠깐이었던 것처럼 지나고 교회로 돌아오는 버스 안, 문득 교회 로비의 예수님 초상화가 생각났습니다. 7선교구 조성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시는 예수님 얼굴, 그것도 곱고 웃고 계시는 예수님 생각에 슬며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를 기뻐 보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지영 권사(7선교구)

모이기에 힘쓰며 헌신하는 광림실업인선교회

감사와 은혜의 40년 '부흥으로' 전진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와 은혜의 40년 부흥으로!

2022·02·26

오후 3시 30분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홀

말씀 김정석 담임목사님
감사의 시간 실업인선교회
약합의 시간 축하공연



광림교회 실업인선교회(회장: 권후원 장로)는 2월 26일(토) 사회봉사관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예배와 축하행사를 가졌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말씀에 이어 기념책자 헌정 및 격려사, 역대회장 감사패 증정, 공로상을 시상하며 실업인선교회 40주년을 축하 격려했다. 이날 모인 선교회원들과 성도들은 40주년 기록 영상과 축하 음악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40년을 돌아보며 청지기적 사명으로 헌신을 다짐하다

1981년 4월 창립 초기 광림교회 성도들 중 경영인과 전문인들로 구성된 '빌레몬선교회'는 초대 회장 김광호 장로부터 성도들을 위한 법률, 세무와 경영 상담으로 봉사하며 교역자 신년하례식과 감리교 원로목사님들을 위로하고 전교인 대상 성지 순례를 주관하며 새신자 환영 선물 및 장학금 지원 등을 감당했다.

1991년 4대 회장 한영희 장로는 광림가족 협동화 운동을 추진하였고, 1995년 5대 회장 감경철 장로 때부터 '광림실업인선교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상담선교회가 독립 선교회로 분리되었다. 이후 터키 선교와 모스크바 광림교회, 중국 고점자교회와 심천 광림교회를 세움으로 해외 선교의 일부를 담당하고 지원했다. 사회봉사관 부지의 초석이 된 주택을 구입하여 교회에 헌납하였고, 본당 파이프 오르간의 설치에도 큰 힘을 보태며 성장기를 보냈다. 이후 6대 고한영규 장로는 '한마음 등산대회'와 '한마음 걷기대회'를 기획하여 전교인이 함께 단합하는 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1년 7대 회장 안중원 장로는 한마음 등산대회와 한마음 걷기대회를 단독행사가 아닌

교회조직과 남·여선교회와 함께 '매칭 펀드 시스템'으로 추진하며 교회 지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본을 보이며 청지기적 사명으로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 시기에 태국 치앙마이 광림교회를 기공하여 8대 회장인 황한성 장로 때 준공하고 영성훈련과 외연 확대를 위해 CEO 영입에 치중하였다.

이후 9대 회장 박호건 장로는 해외 선교 지원과 한국의 지성 이어령 교수 초청강연회로 본당을 가득 채우는 행사를 열고, 한마음 등산대회 때는 동춘 서커스를 초청하여 등산 후 전교인이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2012년 10대 회장 김용순 장로는 회원 확충과 희망교도소음악회, 광림교회 창립60주년 행사,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회원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또 본당 로비 벽면의 황옥으로 된 '최후의 만찬' 조각은 실업인선교회원들의 헌신으로 봉헌되었다.

2016년 11대 회장 박유용 장로는 한마음 걷기대회와 '베트남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여 베트남 선교센터 건립의 보탬이 되었다.

2020년 12대 회장 문송철 장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이기 힘든 시기에 영성훈련과 내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13대 회장 권후원 장로는 2021년부터 회복을 위한 영성훈련과 교육, 사랑의 공동체로 섬기며 질적 성장을 통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고, 창립 40주년 기념역사화보집을 간행하며 은혜와 감사로 재도약과 부흥으로 이끌고 있다.

또한 실업인선교회원들은 사회봉사활동을 감당하며 회원들 친목과 건강을 위한 등산, 골프 등 체육활동과 다양한 문화행사와 영

성수련회를 하고 있다. 매주 선교기금마련을 위한 나비채(나누고 비우고 채우자)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선교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광림수도원 산책로 정비 봉사

실업인선교회원들과 40주년 기념행사를 마친 권후원 장로는 "이제 실업인선교회는 청장년기를 넘어 장년기로 접어들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기업 운영과 교회 내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신앙과 경영의 일치로 참된 믿음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 모든 회원들이 헌신을 실천하며, 회원 상호간에 건전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 발전하는 공동체 되기로 다짐하였다. 교회내의 젊은 실업인들의 모범이 되고, 돕고 키우는 선교회로 미래 세대의 실업인 양성에도 적극 나서겠다. 기업을 경영하며 겪었던 신앙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교 사역 등으로 쓰임 받는 헌신의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40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 찬양을 돌려 드린다"고 했다.

이상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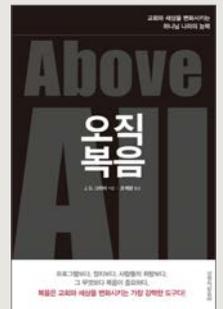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 유진 피터슨 지음

이 책은 시편을 따라 기도하며 발견하는 기도의 실재를 보여준다. 흔히 사람들은 더 고결한 존재가 되거나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얻고자 기도한다. 그러나 시편은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분에게 응답하고자 한 자들이 드린 기도다. 때때로 그 응답은 소망이나 신뢰의 말이 아닐 수 있다. 침묵, 탄식, 신음, 분노, 회의, 저주가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으로 드러진다. 이렇게 정직한 응답을 담은 시편 기도의 시어들은 우리의 걸치레하는 표면을 뚫고 들어가 내면에 은폐된 것을 드러낸다. 인간 현실의 심연을 드러내는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한 인간으로 반응하는 '응답하는 기도'의 전 과정을 경험한다.



[오직 복음]

J. D. 그리어 지음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교회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배 형식과 음악, 프로그램, 설교 기법, 사역 방식에 있어서 보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처럼 무기력해진 것은 구시대적인 사역 방식 때문이 아니다. 과거보다 사람들이 더 악해서도 아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다.

본서는 복음을 중심에 두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 사역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탄하며 그 무엇보다 복음을 중요하게 여길 것을 독려한다. 또한 복음 중심적인 사역과 그렇지 않은 사역을 비교하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을 강조한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4



헤롯의 핍박과 예수의 피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장차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으며, 멀리 동쪽의 페르시아 땅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은 헤롯 왕은 근심이 가득했다.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될 위험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뜻인가?”

심각해진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궁중으로 불러오게 한 후 이렇게 당부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꼭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겐 경배를 해야지요.”

동방박사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후 길을 떠났다. 별의 인도에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는 준비해 온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예물로 바쳤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바로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했다.

“헤롯 왕에게는 가지 말아라.” 동방 박사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이 떠난 먼 나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물론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 그날 밤, 요셉도 꿈을 꾸었고 천사가 나타나

◀ 베들레헴의 영아살해 _ 자신의 권좌에 위협을 느낀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림에는 영아를 살해하는 잔혹한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미 아이를 잃고 닳아 나간 여인과 도망가는 여인의 처절한 비명이 들리는 것 같다. 귀도 레니의 작품.

▲ 이집트로 피신하는 아기 예수. 하나님의 계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하는 장면이다. 그들은 약 7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헤롯 왕 사망 후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필리프 드 샤파뉴의 작품.

서 말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돌아오라 할 때까지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잠에서 깬 요셉은 급히 마리아를 깨워 아기를 품에 안고 베들레헴을 떠났다.

한편 예루살렘 왕궁의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지 않자 헤롯 왕은 잔혹한 결단을 내렸다.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 왕이 된다는 그 아기도 죽게 되겠지. 두 살 아래의 사내아이들은 다 죽여야 한다.” 헤롯 왕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소문이 떠돌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이를 믿었기 때문이다. 헤롯 왕의 핍박에 베들레헴에서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광림뉴스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